

쏘니가 뛴다... 다시 잠 못 드는 밤

EPL, 3개월만에 시즌 재개 ... 애스턴 빌라 vs 셰필드 유나이티드 포문 손흥민 토트넘, 20일 새벽 맨유와 첫 경기...리그 상위 도약 위해 승점 필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가 '비디오게임 한창' 속에서 석 달 만에 시즌을 재개한다.

'한국 축구의 보물'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는 20일 오전 4시 15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시즌 재개 후 첫 경기를 치른다.

18일(이하 한국시간) 새벽 2시 애스턴 빌라와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를 시작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탓에 치르지 못한 2019-2020시즌의 잔여 경기가 치러진다.

이 경기 뒤 4시부터는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 두 빅클럽 간의 맞대결이 펼쳐져 시즌 재개 첫날부터 축구 팬들이 밤잠을 설칠 전망이다.

EPL 역시 분데스리가 등 다른 유럽 리그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무관중'으로 경기가 치러진다.

TV 중계로 경기를 볼 팬들에게 텅 빈 경기장이 주는 적막감이 아닌, '유관중' 경기와 같은 박진감을 선사하기 위해 EPL 중계 방송사인 스카이스포츠가 스포츠 게임 제조업체 EA스포츠와 손잡았다.

EA스포츠는 30년 가까이 만들어진 인기 축구 게임 '피파 시리즈'에 쓰이는 최첨단 음향 기술을 스카이스포츠에 제공한다.

홈 팀이 골을 넣으면 우레와 같은 함성이, 원정 팀에 유리한 판정이 내려지면 야유 소리가 TV 중계에서 흘러나오게 된다.

구단별 응원 구호도 모두 준비돼있다. 리버풀이 30년 만의 우승을 확정하면 '유 윌 네버 워크 얼론(You'll Never Walk Alone)'의 서포터 '태창 버전'을 감상할 수 있다.

영국 매체 데일리메일은 EA스포츠가 게임 제작을 위해 수집해둔 축구 경기장 관련 음향 자료는 총 13시간 분량이고, 응원 구호만 1300 종류에 달한다고 전했다.

손흥민이 소속된 토트넘 홋스퍼는 20일 오전 4시 15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격돌한다.

손흥민은 지난 12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맨유)전을 앞두고 연습경기에 출전해 30분간 예열했다.

30분씩 4쿼터로 진행된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3쿼터에 투입돼 30분간 그라운드를 누비고 4쿼터에 교체됐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8위(승점 41)로 처진 토트넘은 4위 팀까지 주어지는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얻기 위해서는 5위(승점 45) 맨유를 꼭 잡아야 한다.

/연합뉴스



여름밤은 나와 함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소속팀 토트넘으로 복귀한 손흥민이 20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EPL 2019-2020시즌 재개 후 첫 경기에 출전한다. /연합뉴스

'가성비 갑' 황의조

佛 스포츠지 몸값 보다 성과 좋은 선수 톱9에 들어



프랑스 프로축구 보르도에서 뛰는 황의조가 현지 매체로부터 '가성비' 높은 선수로 인정받았다.

프랑스 스포츠 일간 레퀴프는 16일(한국시간) 자체적으로 선정한 '로탈도르' 상 수상 후보를 공개했다.

몸값에 비해 좋은 성과를 낸 선수를 선정하는 이 상에서 황의조는 당당히 후보 9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레퀴프는 황의조의 이적료가 200만유로(약 27억원)라고 소개하며 "시즌 내내 보르도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로탈도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이 4월 말 조기 종료하면서 시상식을 취소한 프랑스프로축구선수협회(UNFP) 대신 레퀴프와 스포츠 게임 업체 MPG가 만든 상이다.

제1회 로탈도르 수상자는 19일(현지 시간) 발표된다.

황의조는 지난해 7월 감바 오사카(일본)를 떠나 보르도와 4년 계약하며 프랑스에 진출했다.

첫 시즌 24경기에 출전해 6골 2도움을 기록하는 등 유럽 무대에 빠르게 적응하며 활약했으나 시즌이 조기 종료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귀국해 4주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프랑스로 돌아간 황의조는 22일 팀 훈련에 합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전남 결승골 합작 즐리안·이유현 '베스트 11'

K리그2 6라운드

결승골을 합작한 전남드래곤즈의 즐리안과 이유현이 베스트 11에 올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2020 K리그2 6라운드 5경기를 평가해 베스트 11을 선정했다.

부천FC와의 원정경기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즐리안이 공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즐리안은 0-0으로 맞선 전반 32분 이유현이 우측에서 올린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하면서 골을 기록했다. 팀은 즐리안의 골을 지키면서 6경기 연속 무패행진에 성공했다.

즐리안은 앞선 5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는 0-1로 뒤진 후반 45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천군 같은 동점골을 넣었다.

좋은 크로스로 즐리안의 골을 돕고 무실점 경기를 이끈 수비수 이유현도 베스트 11에 선정됐다.

승리로 6경기 연속 무패를 이은 전남은 2승 4무(승점 10)로 4위를 지키고 있다.

K리그2 6라운드 MVP의 영예는 멀티골을 작성



한 서울이랜드 수구타 파수에게 돌아갔다.

수구타 파수는 대전과의 홈경기에서 경기 시작 4분 만에 선제골을 넣은 뒤 후반 6분 멀티골까지 성공했다. 서울이랜드는 수구타 파수의 활약으로 대전에 2-0으로 승리하면서 연승을 기록했다. 서울이랜드와 대전의 경기는 6라운드 베스트 매치로도 선정됐다.

베스트 팀은 안산 그리너스에 2-1 승리를 거두며 홈 첫 승을 신고한 경남FC가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메이저리그 개막 '기로'

구단주 8명 이상 원하지 않아... 개막안 지지선 확보 빨간불

2020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정규리그 개막을 원하지 않는 구단주가 적지 않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방송사 스포츠넷뉴욕(SNY)에서 메이저리그를 취재하는 앤디 마르티노 기자는 17일(한국 시간) 트위터에 "구단주 6명이 시즌 개막을 바라지 않는다고 들었다"며 "톱 맨프레드 MLB 커미셔너는 개막을 원하지 않는 구단주가 더 늘기 전에 서둘러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썼다.

온라인 스포츠전문 매체 디에스레픽도 전날 한 선수 에이전트의 말을 인용해 개막을 원하지 않는 구단주가 8명 이상이라고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탓에 무관중으로 시즌을 시작하면 각 구단은 입장 수입을 올리지 못해 재정 손실을 본다.

게다가 연봉 지급 방식을 논의하던 메이저리그 노사 협상은 파국으로 끝났다.

시즌이 열리지 않으면 선수들에게 연봉을 주지

않아도 되기에 차라리 올해 빅리그를 개최하지 말자고 생각하는 구단주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단주가 더 늘면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입지가 좁아진다.

메이저리그 각 구단과 선수노조는 올해 3월 정규리그 개막 연기에 따른 재난 보조금 성격의 선급금 지급, 자유계약선수(FA) 취득에 필요한 등록일수 등에서 '코로나19 합의'를 이룰 때 맨프레드 커미셔너에게 시즌 개막을 선언할 수 있는 직무상 권한을 부여했다.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시즌 개막안을 준비해 구단주 총회에서 75% 이상의 지지를 얻으면 그대로 개막을 추진할 수 있다.

다시 말해 30개 구단 중 23명이 맨프레드 커미셔너의 시즌 개막안을 지지해야 올해 빅리그가 열린다. 그러나 시즌 개막을 반대하는 구단주가 6~8명 이상이라는 보도를 보면, 지지선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게 사실이다.

/연합뉴스

'어차피 우승은 뮌헨'

뮌헨,獨 분데스리가 8연패

'어차피 우승은 뮌헨'이라는 말은 올 시즌에도 유효했다. 독일 프로축구 '절대 1강'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 8연패를 이뤘다.

뮌헨은 17일(한국시간) 독일 브레멘의 베저 슈타디온에서 열린 2019-2020 독일 분데스리가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결승골을 앞세워 베르더 브레멘에 1-0으로 이겼다.

이로써 승점 76점(24승4무4패)을 쌓은 뮌헨은 2위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승점 66·20승 6무 5패)와 승점 차를 10점으로 벌려, 남은 2경기 결과에 상관 없이 조기에 우승을 확정했다.

2012-2013시즌부터 한 번도 독일 챔피언 타이틀을 놓친 적이 없는 뮌헨은 이번 우승으로 8연패를 달성했다.

또 분데스리가 최다 통산 우승 기록을 30회로 늘렸다. 2020년 발롱도르 수상자로 거론되는 '골잡이' 레반도프스키가 정규리그 31호 골이자 시즌 46호 골로 팀에 승리를 선사했다.

/연합뉴스